

● 일본의 양계소식

산 란 계

1. 계란표시법 설명

(사)일본난업협회는 6월28일 동경 신주꾸(新宿區) 이이다바시(飯田橋) 레인보빌딩에서 후생노동성 식품보건부기획과의 가나가와(神奈川) 쟁직원과 농림수산소비자기술센터 표시지도 제1과 과장을 강사로 초대하여 계란의 표시에 관한 연수회를 열었다.

「식품위생법 등에 관계되는 계란의 표시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한 후생노동성 식품보건부 가나가와(神奈川) 쟁직원은 식품의 표시에 관계되는 법률로서 식품위생법과 JAS법, 경품표시법(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등을 들어, 식품위생법상 의무로 되어 있는 표시사항은(1) 명칭, (2)소비기간 또는 품질보증기간, (3)제조사, 가공사 혹은 수입업자의 소재지, (4)제조사, 가공업자 혹은 수입업자의 이름, 명칭 (5)보존방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JAS법률에 관계되는 계란의 표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농림수산소비자기술센터의 표시제1과장은 JAS법에 의무로 되어 있는 표시사항은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명칭과 원산지만으로 하고 계란은「양계장의 명칭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원산지표시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JAS법에 대해서는「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표시를 위반한 사람이나 기업의 이름을 탄력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도, 벌칙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벌금도 개인이 50만엔(500원)이하~100만엔(1,000원)이하, 법인은 50만엔이하~1억엔이하로 강화되었다」고 설명하였다(계명신문 발췌).

2. 식료품의 구매 대상 1위 계란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식료품을 구매할 때에 잘 살펴보는 품목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첫 번째는「계란」으로 조사대상의 49.7%가 응답하였고 두 번째로는「냉동식품」, 그 다음으로「우유」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작년에 실시한 것이며 전국 주요도시에 사는 1,020명의 식료품 소비 조사로부터 얻어진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식료품을 구입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영양·기능성에 관한 정보」와 「요리법에 관한 정보」를 참고로 한 구매가 79.3%로 가장 높았다(계명신문 발췌).

3. 8월 중반 이후 수요증가 예상

전농이 발표한 8월 축산물시황예측은 공급면에서 추석휴가를 겨냥한 생산조정이 예상되어 생산량은 억제될 전망이다, 늦더위가 심하고 산란율이 저하되고 생산량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수요면에서는 더위가 계속되어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계휴가에 따른 귀성객이나 행락객에 의한 지방 수요가 활발하게 되어, 추석이 지난 이후 수도권에서의 소비가 기대되며 가격은 중간 크기로 월 평균 145엔(円) 전후를(전년 138円)을 전망하였다(계명신문 발췌).

표1. 동경계란가격

(단위: 엔, 일본 계명신문 발췌)

크 기	LL	L	M	MS	S	SS	입하량
가 격	175	181	156	151	145	80	1,310톤



윤 병 선
한일사료(주) 기술연구소 부소장
농학박사



육 계

1. 6월 계육수입 7% 감소, 가공품 대폭 증가

재무성(재정경제부) 관세국이 이번에 발표한 6월분 닭고기 수입통관실적에 따르면 닭고기는 전년동월 대비 93.1%로 36,463톤이었다.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뼈 있는 넓적다리가 2,319톤으로(전년동월 대비 38.0%)이었고 다른 부위의 닭고기는 34,144톤이었다. 이 중에서 냉장품은 닭고기가 191톤으로 전년동월 대비 35.4%였으나 닭고기 가공품은 16,768톤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141.8%에 달하였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동월에 비하여 112.6%였다. 이 중에서 냉장품은 26.4%를 차지한 반면, 닭고기 가공품은 123.7%로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늘어났다. 의사가 임신부에게 권장하는 닭 간의 수입량은 49.9%, 칠면조고기는 65.2%였다(계명신문 발췌).

2. 미국산 오리고기 수입금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텍사스 등 4 개주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일시적으로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가 최초 발생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현재, 미국가축위생당국의 확인 결과 추가 발생이 없어 텍사스주로부터의 수입금지가 8월 2일 해제되었다. 그러나 재일미국대사관으로부터 미국 뉴욕주 오리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형질아형 H5)가 발생되었음을 알려와 8월6일부로 미국산 가금육에 대한 수입을 다시 금지키로 하였다. 현시점에서 바이러스의 병원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금 패스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축위생조건에 따라 뉴욕주에만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하였다(일본 양계협회 발췌).

3. 백색 하버드 우수한 비육성적 과시

일본에서 커다란 시장점유율은 차지하였던 하버드가 일본시장에 맞추어 넓적다리 고기가 많은 쪽으로 개량하여 금년 사양시험을 실시한 결과, 백색계는 다른 품종에 비하여 비육성적이 가장 좋으며 황색계도 뒤떨어지지 않는 성적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살붙임도 넓적다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성적이 다른 품종을 상회하였다. 이번에 시험한 병아리는 수입, 검역, 이동 등의 스트레스가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높은 능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여 일본에서의 하버드부활을 추진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표2. 8월 닭고기 수입동향

(도매가격: 단위 엔, 日本食鳥協會자료 발췌)

품 목	국 별	동 경	오오사까	품 목	국 별	동 경	오오사까
뼈포함넓적 다리고기	미 국	292	238	넓적다리고기	미 국	500	305
	태 국	375	370		태 국	427	299
	브라질	375	-		브라질	260	284
가슴고기	태 국	250	-	꼬치고기	태 국	605	460
	중 국	160	-		중 국	550	440

* 상세한 내용은 한일사료 기술연구소로 문의 바람 (031-280-4046)